

한-이란 기본여신약정(FA) 체결

장윤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

주요내용

- ▶ 2017년 8월 24일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란 경제재정부와 80억 유로(약 10조 6,465억 원)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기본여신약정(FA: Framework Agreement)을 체결함.
- ▶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은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1차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및 아시아 국가와의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있음.
- ▶ 이번 FA 체결로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은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대이란 적대 정책 유지, 이란-사우디 간 갈등 지속 등의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세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.

1. 이슈 현황

▶ 2017년 8월 24일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란 경제재정부와 80억 유로(약 10조 6,465억 원)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기본여신약정(FA: Framework Agreement)을 체결함.¹⁾

□ FA는 이란 진출 국내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 금융협정으로, 이란 정부가 지급보증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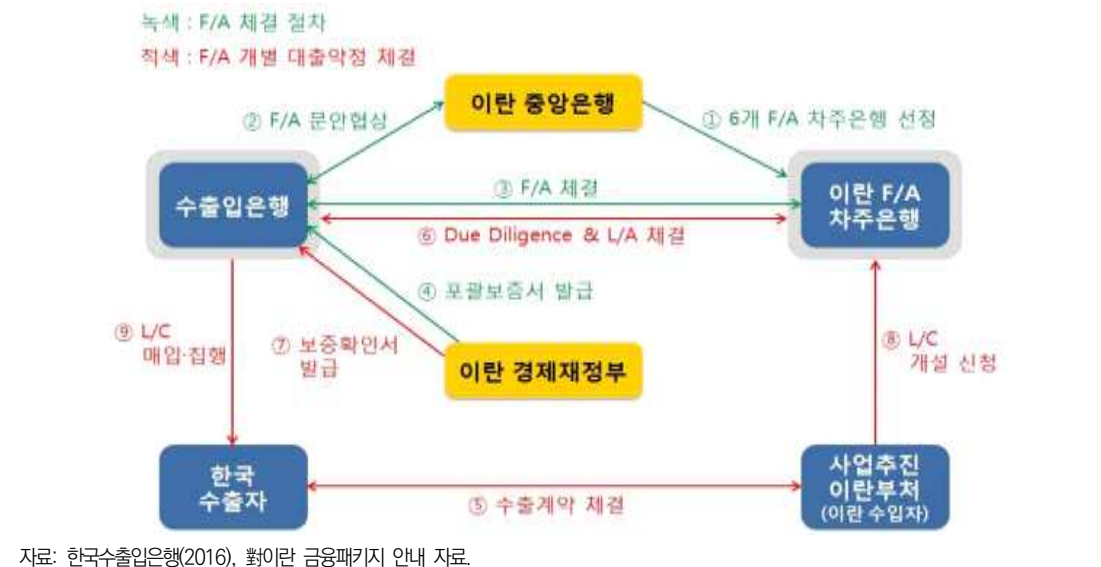
- 이번엔 한국과 이란 간 체결된 FA는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금융약정으로 평가됨.

□ 2016년 5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이란과 FA 체결을 위한 MOU를 맺었으나 이란이 핵합의안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제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(snapback)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협상이 지연됨.

- 이란 내 프로젝트는 ECA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, FA 체결이 늦어지면서 이란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음.

1) "Iran-South Korea ink greatest bank deal in post-JCPOA era"(2017. 8. 24), *IRNA*.

그림 1. FA 활용 금융지원 구조



2. 원인과 분석

▶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은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1차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및 아시아 국가와의 금융협력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이란은 오스트리아, 덴마크, 이탈리아, 일본 등과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 계약 체결을 논의 중으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.²⁾

- 오스트리아 오버뱅크(Oberbank)는 이란 중앙은행 및 경제재정부 사절단이 은행 본사가 위치한 오스트리아 린츠(Linz)를 9월 21일 방문하여 계약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힘.³⁾

□ 한편 이에 앞서 이란 산업광물은행은 7월 25일 중국 수출입은행과 이란 철도 사업에 대한 15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.⁴⁾

- 이번 금융 지원은 중국 국영기업 기계수출입공사(CMC)가 수주한 테헤란-마슈하드 구간(926km) 철도 전력화 사업을 위한 것으로, CMC는 이란 철도공사(IRIR)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.

2) Maziar Motamedi(2017. 8. 30), "Iran Close to Finalizing \$30b Foreign Finance Deals," *Financial Tribune*.

3) Alexandra Schwarz-Goerlich(2017. 9. 7), "Oberbank set to finance Austrian projects in Iran with new deal," *Reuters*.

4) "China's EXIM inks \$1.5bn deal for high-speed rail in Iran"(2017. 7. 25), *PressTV*.

3. 전망과 시사점

▶ 이번 FA 체결로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은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대이란 적대 정책 유지, 이란-사우디 간 갈등 지속 등의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세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.

□ 2014년 하반기 이후 저유가의 영향으로 대중동 건설 수주가 급감한 가운데 이란은 국내기업의 유망 프로젝트 시장으로 부상함.

- 2017년 한국의 대중동 건설 수주 규모는 9월 현재 91억 5,491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대이란 건설 수주가 52억 3,708만 달러로 약 57%를 차지함.⁵⁾
-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국내기업은 2조 3,036억 원 규모의 이스파한 정유 프로젝트, 3조 8,000억 원 규모의 사우스파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함.⁶⁾

□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서 스냅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나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FA 협상에서 양측은 스냅백 상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.

- FA 합의 내용에 따라 스냅백 상황이 발생하면 양국은 대출 상환을 우호적으로 협의하게 되고 협의가 결렬될 경우 수출입은행은 대출금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.⁷⁾ **EMERiCs**

💡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5)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, 건설통계(검색일: 2017. 9. 14).

6) 김현지(2017. 1. 26), 「대림산업 2.3兆 이란 이스파한 정유공장 공사…편당값은 어떻게?」, 『건설경제』; 이한나(2017. 3. 13), 「현대ENG, 이란서 3조8천억 수주」, 『매일경제』.

7) 강훈상(2017. 8. 24), 「한국 수출입은행, 이란에 10조6천억원 여신 제공 합의」, 『연합뉴스』.